

정읍시·나리타시 우호결연 기념교류전 **이역만리 같음과 다름** 진행중

# 한일 고대사·문화 비교

정읍시와 나리타시의 위도는 각각 35.34도, 35.46도로 거의 비슷하다. 때문에 온도와 습도, 자연경관 등 환경적인 면에서 서로 닮아 있다. 또한 정읍 고사부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비백제 때에는 양국 간의 우수한 물자와 장인, 때론 정치적인 차원에서 혼인을 통한 교류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대를 바탕으로 양 시는 지난 2002년에 우호교류협약을 맺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정읍시와 일본 나리타시 간의 우호교류협약 체결 15주년 특별전 '이역만리 같음과 다름' 기획으로 관람객을 맞고 있다.

박물관의 이번 기획특별전은 구석기시대부터 고훈시대(한국·삼국시대)에 이르는 한·일 고대 문화와 문물을 비교 전시하는 자리로 시대별·문화 및 역사적 특징에 따라 총 4부로 구성된다.

먼저 제1부 '돌을 다듬어 도구를 만들다'에서는 구석기시대에 제작 사용된 타제석기와 흑요석제 석기를 다룬다. 장흥 신복유적에서 출토된 흑요석제 석기는 일본 나리타시에서도 다수 확인되어 교류의 일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다'에선 일본의 조몬시대와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문화를 선보인다. 이전 시대와 달리 본격적으로 수렵추거지를 만들어 정착생활을 하며 생활용기인 토기를 만들어 사용한다. 빗살무늬토기를 주로 사용한 정읍과 달리 나리타시의 경우 끈무늬를 배운 조몽토기가 유행한다.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양 도시 유물들 선보여 전시는 내년 1월 28일까지

'농경을 하고 영역을 구분하다'에서는 일본의 야요이시대와 우리의 마한시대를 비교한다. 한국의 청동기시대에 성행한 도자 문화가 이 시기에 일본 열도로 전해지며 세형동검, 철기 등의 교류를 통해 대규모 집락이 조성되며 계층사회가 형성되며 영역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마한지역에 해당하는 정읍에도 이 시기 주거지 및 고분군이 밀집분포하고 있으며 고비리굴, 초산도비리굴 등 소굴이 할거하기 시작한다. 교류의 양상이 더욱 더 구체화되는 시기이다.

제4부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나라를 표방하다'는 한국의 삼국시대와 병행하는 일본의 고훈시대를 함께 다룬다. 정읍지역에서는 백제시대의 석곽유적, 대규모 고분군 등이 조성되며, 특히 사비기 때에는 중방성인 고사부리성을 중심으로 거점지역으로 성장한다.

'고훈'은 한자어 '古墳'의 일본어 발음으로, 전방후원분이 등장한 3세기 중엽부터 6세기 말까지를 고훈시대라 부른다.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지배자의 대형 무덤과 화려한 부장품이 만들어진다. 특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하나와가 정읍의 인접지역인 고창과 함평 일대에서 확인되어 이번 전시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 나리타시에서도 이 시기에 해당하는 고분군을 비롯하여 집락, 옥 제작공방, 석제모조품 제작터 등의 유적지와 하나와, 토기, 옥, 장신구 등 다양한 문화양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출토된 5세기대의 석제모조품은 일본 나리타시에서 확인된 유물과 거의 흡사하여 이전 시대와 달리 정읍의 동진강 유역과 나리타의 도네강의 직간접적인 문화교류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이역만리 떨어진 양국의 두 도시 간에도 고대부터 교류의 전시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일의 고대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 내년도 청년작가초대전의 주인공은 누구?

우진문화재단의 '2018년 청년작가초대전'에 배병희(36), 김지현(33) 작가가 선정됐다.



배병희 작가는 전북대 미술학과(조소 전공)를 졸업하고, 독일 아라투스 조형예술대 조소과 석사와 전북대 예술대학원 미술학 박사를 수료했다. 배 작가는 향후 작품 활동으로 '빌딩 위 시민들' 나무조각 작업을 할 예정이다. 1.5~2m 크기의 중·대형 작품을 포함한 20여점의 목조각과 채색된 나무 조각을 사용한 설치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진문화재단, 배병희 김지현 작가 선정

전주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Swan Lake'를 주제로 평면회화와 입체설치를 작업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월메이드 VR콘텐츠 제작에 관심있으신 분?

전주영상위, 24일부터 이틀간 무료 특강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영화영상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VR기획X콘텐츠' 특강을 24~25일 양일에 걸쳐 무료로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4차 산업의 주요 요소로 각광받고 있는 VR을 주제로 첫 번째 시간에는 VR의 국내 현황과 추후 방향을 제시해 준다. 두 번째 시간엔 VR제작 실패사례를 바탕으로 기획과 스토리텔링 기법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강에는 국내 최초 ALL VR 드라마인 '4월에'를 제작한 토마토 프로덕션의 박정훈 제작본부장이 나선다.

참가신청은 현재 영화영상관련 업체 혹은 VR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전주영상위 홈페이지(www.jjf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21일까지 이메일(apply@jjf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청소년뮤지컬단 '마리첼' 문화예술교육축제 장려상

뮤지컬 '페임' 무대에 선보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청소년뮤지컬단 마리첼(My Little Challenge)이 지난 14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2017문화예술교육축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전국 문화회관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로 전국 23개 문화회관이 참여했다.

도내 중·고등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된 '마리첼'은 무대에 올라 뮤지컬 '페임'을 선보였다.

마리첼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전당 대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청소년뮤지컬단 마리첼(My Little Challenge)이 지난 14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2017문화예술교육축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습실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 꾸준히 연습을 해왔으며, 지난 7월에는 명인홀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전당 관계자는 "마리첼은 전문가와의 만남

을 통한 진로탐색과 공연제작을 연계한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무대에 열정 있는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 사운드 영화 상영회, 21일 남원 지리산 소극장서

소리기반의 수준 높은 영화 상영을 통해 소리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남원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운드 영화 상영회가 지리산 소극장에서 열린다.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번 영화 상영회는 남원 일상의 소리를 찾고 예술적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국내외로 유명한 사운드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리서치와 워크숍을 진행하는 '2017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상영작으로는 2017 DMZ 국제 다큐 영화제 출품작인 티잔 부치(Tizian Buchi) 감독의 '사운드 오브 윈터'와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참가 중인 영국 사운드 아티스트 겸 감독 마크 라이켄(Mark Lyken)의

'태풍 그리고 고속도로의 성자'가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태풍 그리고 고속도로의 성자'를 감독한 마크 라이켄(Mark Lyken)이 직접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영화 상영회는 온라인(goo.gl/pQv8Tn)과 전화(063-635-001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상영회를 주관하는 남원문화도시 사무국은 "남원의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문화컨텐츠를 접할 기회를 만들고 남원이 소리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사운드 프로그램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